
 교육부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5. 4.(화) 배포</p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
보도일	2021. 5. 6.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5. 5.(수) 09:00 이후 보도 가능				
담당과	국립대학병원지원팀	담당자	팀 장 사무관	박창원 (☎ 044-203-6020) 이준혁 (☎ 044-203-6826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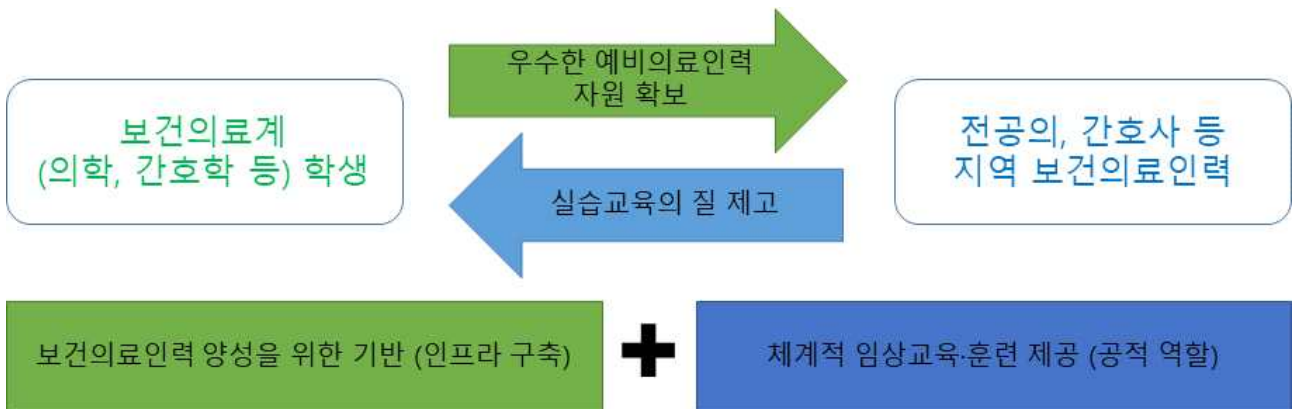
국립대병원의 지역 내 보건의료교육을 위한 공적 역할 강화한다

- ◆ 교육부,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신축 부문에 충남대병원, 기능 변경(리모델링) 부문에 제주대병원 선정
- ◆ 모의실습 중심의 의료 임상교육시설 구축을 통해 병원 내외 의료인의 역량 향상 지원과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 강화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국립대병원에 최초로 설치되는 임상교육훈련센터 공모 선정결과를 5월 6일(목)에 발표하였다.
 - 의학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, 신축 부문에는 충남대병원이, 기능 변경(리모델링) 부문에는 제주대병원이 선정되었다.
 - 지원 예산은 신축 부문에 2023년까지 187.5억 원, 새 단장 부문에 2021년 25.3억 원을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.
-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국립대병원에 설치하는 시설로, 전공의 등 병원 내 의료인력을 포함하여,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 보건 의료 를 위해 종사하는 지역 의료인력들의 보건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 교육·훈련을 실시한다.

- 교육 대상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사, 간호사, 학생 등 보건 의료인력 전반이 해당되며, 이들에게 양질의 의료교육을 제공한다.
 - 먼저, 병원 내 전공의, 간호사 등 인력들에 대해 모의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, 병원 외부 지역 의료인들에게도 의료술기 재교육 기회를 제공한다.
 - 또한, 지역의 예비 의료인력인 보건의료계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.

< 임상교육훈련센터 체계도 >



- 이를 위해, 이번 선정평가에서는 국립대병원의 지역 내 공적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해, 건립·운영 계획 등 기본적인 계획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적 역할 강화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.
- 충남대병원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대전·충청권 의료진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료진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연간 약 67,000명의 전공의, 간호사 등 의료인을 교육할 계획이다.
- 특히, 국고 지원금 외에 충남대병원의 자체 예산 42억 원을 5년간 투입하고, 전담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해나갈 계획이다.

□ 한편, 제주대병원은 모의 교육훈련 장비 등을 도입하여 지역 의료진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연간 약 9,000명의 의료인을 교육할 계획이다.

○ 이를 통해, 중증질환 분야에 대한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, 환자의 관외 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 의료자치*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.

* 진단부터 완치까지 모든 필요한 의료 공급을 해당 지역 내에서 해결

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명실공히 교육기관으로서, 지역 내 의료인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 기능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며,

○ “국립대병원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교육 기반 시설(인프라)이 부족한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적 역할을 담당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.”라고 강조하였다.